



즉시 배포용: 2015년 12월 23일

주지사 **ANDREW M. CUOMO**

## **CUOMO** 주지사, 임신 여성이 언제든지 주 건강보험 거래소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전국 최초의 주로 만드는 법안에 서명

**Andrew M. Cuomo** 지사는 오늘 임신한 뉴욕주민에게 건강보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법안의 서명을 발표하였습니다.

이 조치는 임신 여성이 임신 동안 언제든지 주 건강보험 거래소에 등록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뉴욕주는 건강보험 거래소를 통해 언제든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임신을 “적격 생애 사건”으로 만드는 전국 최초의 주가 됩니다.

“이 법안은 임산부들이 출산전 필수 진료를 받도록 도와서 더 튼튼하고 건강한 뉴욕주를 건설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”라고 **Cuomo** 지사는 말했습니다. “본인은 미래 세대의 뉴욕주민들에게 큰 영향을 끼칠 이 극히 중요한 문제에 대한 법안 발의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.”

이전에는 임신이 적격 생애 사건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. 그러한 생애 사건에는 주거지 변동, 아이의 출생 또는 입양 및 결혼, 이혼 또는 배우자 사망이 포함되었습니다. 따라서 거래소를 통한 등록은 공개 등록 기간(10월~12월) 동안에만 가능합니다.

본 법안(S. 5972/A. 6780B)은 임신을 “적격 생애 사건”에 포함시킴으로써 임신중 언제든지 뉴욕주 보건부의 건강보험 거래소를 통해 보험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.

여성을 위한 보험 보장은 여성이 임신한 것으로 인증된 달의 첫날부로 발효될 것입니다.

**상원의원 Liz Krueger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:** “모든 여성은 임신중 적절한 의료를 받아야 하는 데 본인이 이 상식적 법안을 열심히 추진한 이유도 그것 때문입니다. 본인은 서명하신 주지사께 감사드리고, 뉴욕주를 여성이 임신하는 때를 인정하는 전국 최초의 주로 만든 상원의원 **Seward** 및 **Hannon**, 하원의원 **Simotas**, 회계검사원장 **Stringer**, 그리고 **March of Dimes** 및 미국산부인과협회 등 전주적 단체들에게 축하를 보냅니다. 이 법률은 더 건강한 어머니, 더 튼튼한 아기와 뉴욕주의 근면 가족을 위한 안전 보장을

의미합니다.”

하원의원 **Aravella Simotas**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:”본인은 뉴욕주를 소득과 상관 없이 모든 여성을 위해 산전 의료를 보증하는 전국 최초의 주로 만드신 **Cuomo** 지사께 박수를 보냅니다. 어머니로서 본인은 산전 의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알고 있는데, 이 역사적 법안은 여성과 아동의 건강이 달력의 임의적 날짜에 휘둘리지 않도록 합니다.”

뉴욕주 **Family Planning Advocates**의 섭외 담당 **Kelli Owens**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:”오늘 뉴욕주는 임신중 의료 보장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전국적 리더로서 한 걸음을 디뎠습니다. 이 새 법률은 임신 동안에도 중요한 산전 진료 및 기타 건강 니즈가 충족되도록 함으로써 모자 건강을 개선할 스마트한 공공 정책입니다. 뉴욕주 **Family Planning Advocates**는 이 중요한 법안을 뉴욕주 법으로 만드는 노력에 동참한 것이 자랑스럽습니다.”

###

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: [www.governor.ny.gov](http://www.governor.ny.gov)  
뉴욕주 | Executive Chamber | [press.office@exec.ny.gov](mailto:press.office@exec.ny.gov) | 518.474.8418